

아이돌봄서비스, 이렇게 다릅니다.



- 가정 내 1:1 양육**

 - 전문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합니다.
- 상황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 제공**

 - 시간제, 영아 종일제, 종합형, 보육교사형 등 다양한 유형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중 24시간 원하는 때 언제든지 이용 가능**

 - 야간, 공휴일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이 가능하여 야근 및 주말 근무나 긴급한 상황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 *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이용자가 많은 경우 서비스 연계가 지연될 수 있음
- 양육 공백 발생 가정에 정부지원**

 -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저소득 가정에 이용금액 일부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돌봄 역량을 강화합니다.
- 전문 교육을 이수한 돌봄 전문가 파견**

 - 아이돌보미는 철저한 신원조회와 건강검진, 면접 등을 거친 후 양성교육을 이수한 돌봄 활동 전문가입니다.
 - 또한 매년 정해진 보수교육을 이수, 건강상태와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자격 및 전문성을 유지합니다.
- 지속적인 서비스 관리**

 - 여성가족부는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 또한 정기적·지속적인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지역별 아이돌봄서비스 문의처

| 시·도 | 광역가점기관명 | 전화번호 |
|-----|------------------|--------------------|
| 서울 | 서울특별시시간강가정지원센터 | 02)318-8105 |
| 부산 | 부산광역시시간강가정지원센터 | 051)330-3444 |
| 대구 | 달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53)639-1527 |
| 인천 | 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32)875-2995 |
| 광주 | 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62)369-0074 |
| 대전 | 대전광역시시간강가정지원센터 | 042)256-9993 |
| 울산 | 울산광역시시간강가정지원센터 | 052)271-3334 |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시간강가정지원센터 | 044)862-9337 |
| 경기 | 경기도여성비전센터 | 031)8008-8020,8011 |
| 강원 | 원주YMCA | 033)745-6012 |
| 충북 | 청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43)297-1817 |
| 충남 |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41)360-3209 |
| 전북 |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63)254-0289 |
| 전남 | 순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61)750-5353 |
| 경북 |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054)703-7038 |
| 경남 |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 055)249-2960 |
| 제주 | 서귀포시건강가정지원센터 | 064)760-6484 |

아이돌봄 서비스

대표번호 1577-2514

홈페이지 <https://idolbom.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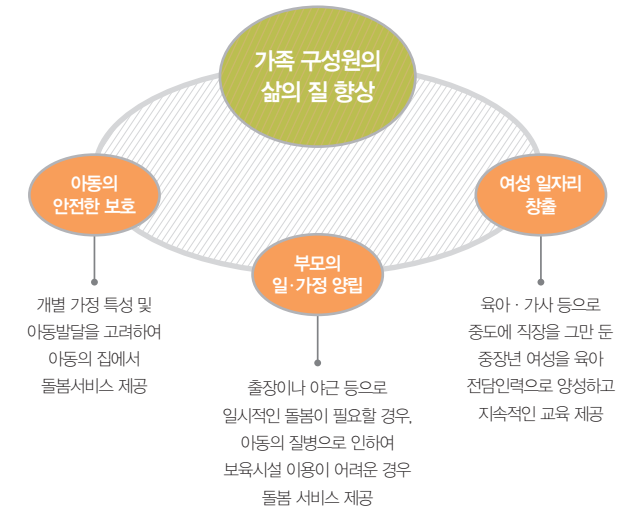
아이돌봄
서비스안내
지원사업 안내

찾아가는 서비스,
아이돌보미와 함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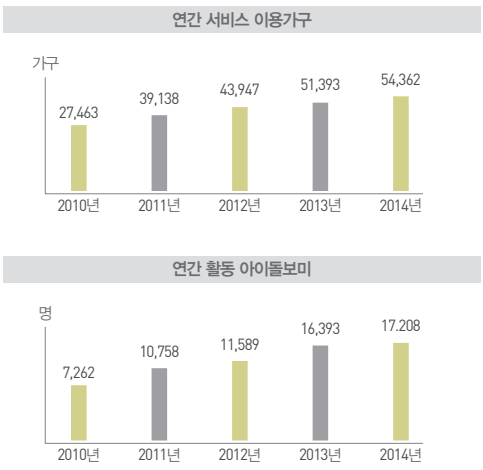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사업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발전 경과



아이돌봄서비스, 이렇게 다릅니다.



가정 내 1:1 양육

- 전문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합니다.

상황에 따른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 제공

- 시간제, 영아 종일제, 종합형, 보육교사형 등 다양한 유형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중 24시간 원하는 때 언제든지 이용 가능

- 야간, 공휴일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이 가능하여 야근 및 주말 근무나 긴급한 상황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 *돌보미 수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이용자가 많을 경우 서비스 연계가 지연될 수 있음

양육 공백 발생 가정에 정부지원

-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저소득 가정에 이용금액 일부를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돌봄 역량을 강화합니다.


전문 교육을 이수한 돌봄 전문가 파견


- 아이돌보미는 철저한 신원조회와 건강검진, 면접 등을 거친 후 양성교육을 이수한 돌봄 활동 전문가입니다.
- 또한 매년 정해진 보수교육을 이수, 건강상태와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자격 및 전문성을 유지합니다.

지속적인 서비스 관리

- 여성가족부는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 또한 정기적·지속적인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지역별 아이돌봄서비스 문의처

 **아이돌봄** 서비스

 대표번호 **1577-2514**

 홈페이지 **<https://idolbom.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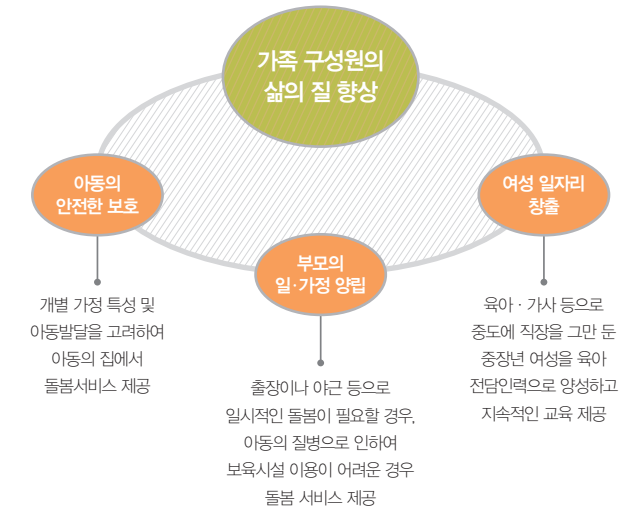
아이돌봄 서비스안내 지원사업 안내

찾아가는 서비스,
아이돌보미와 함께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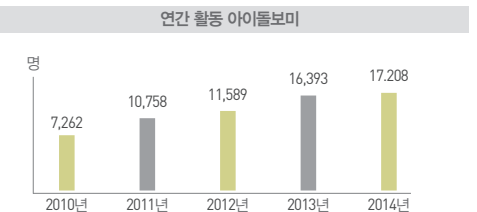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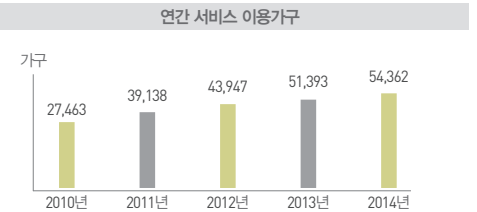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사업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발전 경과



서비스 안내

시간제 · 종합형 돌봄 서비스

- 대상 연령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서비스내용

시간제 돌봄 서비스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및 학원의 등 · 하원, 안전 · 신변보호 처리, 준비물 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사활동 제외)

종합형 돌봄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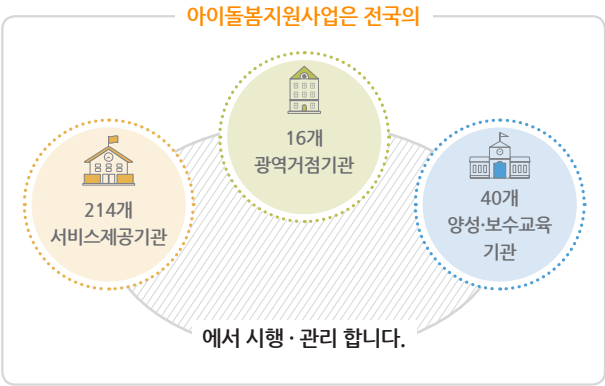
시간제 돌봄 서비스 내용에 돌봄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회) 및 정리
- *아동 놀이공간 정리, 청소기 청소(회) 및 정리
-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과 그에 따른 설거지

이용요금 및 정부지원 안내

| 유형 |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 시간제(시간당 6,000원) | | 종합형(시간당 7,800원) | |
|----|---------------------|-----------------|--------|-----------------|--------|
|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50% 이하 | 4,500원 | 1,500원 | 4,500원 | 3,300원 |
| 나형 | 50~70% 이하 | 2,700원 | 3,300원 | 2,700원 | 5,100원 |
| 다형 | 70~100% 이하 | 1,500원 | 4,500원 | 1,500원 | 6,300원 |
| 라형 | 100% 초과 | - | 6,000원 | - | 7,800원 |

* 야간 · 휴일 이용 시 시간 당 3,000원 할증
* 돌봄 아동 추가 시 : 추가 아동 1인당 기본 단가의 50% 적용



영아 종일제 · 보육교사형 돌봄 서비스

- 대상 연령 : 만 3개월 이상 ~ 만 24개월 이하 아동
- 서비스내용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분야의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사활동 제외)

보육교사형 돌봄 서비스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별도의 보육교사형 돌봄미 교육을 이수한 아이돌보미가 월간 활동 계획에 따른 영아 표준 돌봄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사활동 제외)

이용요금 및 정부지원 안내

| 유형 |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 영아 종일제 (월 120만원, 200시간) | | | | 보육교사형 (월 144만원, 200시간) | | | |
|----|---------------------|----------------------------|------|-----------------|------|---------------------------|------|-----------------|-------|
| | | 0세 (12개월 이하) | | 1세 (13~24개월) | | 0세 (12개월 이하) | | 1세 (13~24개월) | |
|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50% 이하 | 84만원 | 36만원 | 78만원 | 42만원 | 84만원 | 60만원 | 78만원 | 66만원 |
| 나형 | 50~70% 이하 | 72만원 | 48만원 | 66만원 | 54만원 | 72만원 | 72만원 | 66만원 | 78만원 |
| 다형 | 70~100% 이하 | 60만원 | 60만원 | 54만원 | 66만원 | 60만원 | 84만원 | 54만원 | 90만원 |
| 라형 | 100% 초과 | 48만원 | 72만원 | 42만원 | 78만원 | 48만원 | 96만원 | 42만원 | 102만원 |

* 야간 · 휴일 이용 시 시간 당 3,000원 할증
* 돌봄 아동 추가 시 : 추가 아동 1인당 기본 단가의 50% 적용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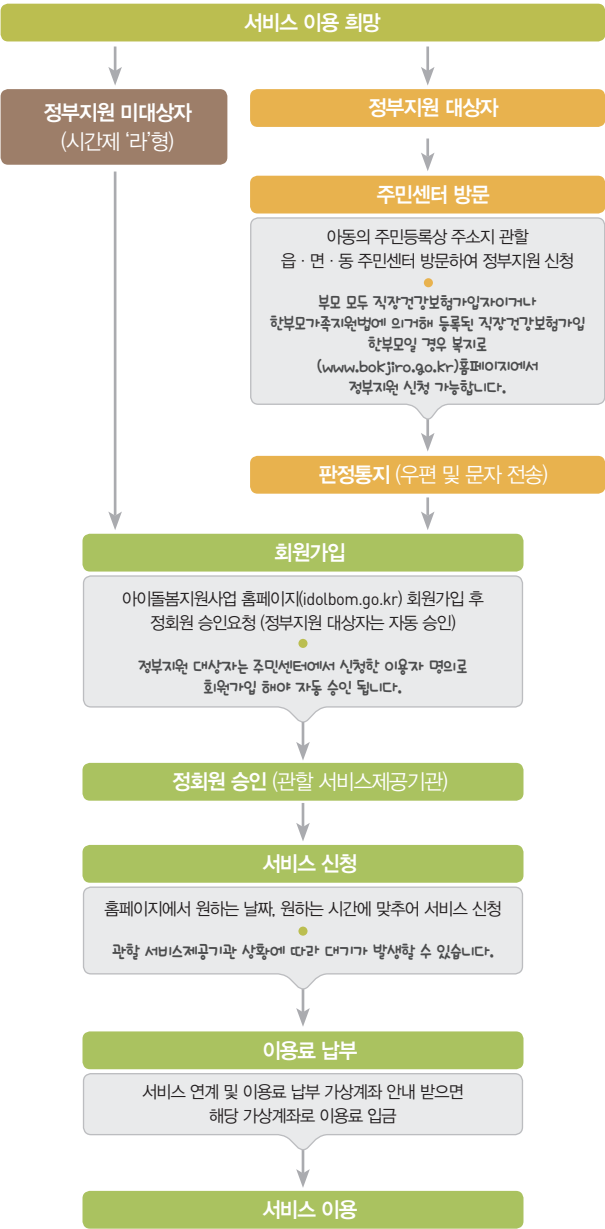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 유행성 질병으로 인해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를 특별 지원합니다.

이용요금 및 정부지원 안내 (질병 완치 시 까지 적용)

| 유형 | 소득기준(전국가구 평균소득) | 시간제 (시간당 7,200원) | |
|---------|-----------------|------------------|--------|
|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전 유형 해당 | | 3,600원 | 3,600원 |

*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서비스 이용 시간은 정부지원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서비스 신청 방법·절차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사례

마음을 움직인 따뜻한 돌봄서비스

(2014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사례집 대상자)

2014년 7월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아홉 살 큰아이는 학교에, 다섯 살 둘째는 유치원에 보내고 사무실로 출근했다. 그날 역시 특별한 걱정 없이 사무실에서 맡은 업무를 처리하고, 시간을 보내 어느덧 퇴근 우렘이었다. 오늘 저녁엔 무엇을 해먹을까 고민하며 일과를 정리하던 때였다. “띠리리링, 띠리리링” 핸드폰 수신자에 ‘박OO 돌봄 선생님’이라고 뜬다. 순간 엄마만이 알 수 있는 불길한 예감이 감돌았다. “여보세요? 선생님 웬일이세요? 저 곧 퇴근할건데요.” “어머님, 먼저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한소소리) 아이는 괜찮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셨으면 합니다.”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지만, 놀라지 말라는 돌봄 선생님의 따뜻한 말과 아이는 괜찮다는 말을 애써 믿으며 두근거리는 심장을 누르고 수화기에 귀 기울였다. “놀이터에서 잘 놀던 아이가 집으로 돌아오던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주저앉고 숨을 쉬지 않더니 쓰러졌어요. 곧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고, 응급처리를 하라는 대로 했더니 다시 숨을 쉬고 정신이 돌아오는 듯해요. 방금 119 응급대원들이 도착해서 병원으로 이송중이에요.”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다급해진 목소리로 다시 전화기에 대고 물었다. “선생님, 바로 출발할게요. 병원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잠시 만요.” 돌봄 선생님과 통화하던 전화기는 아이를 병원으로 옮기는 119 응급대원의 손으로 넘겨지는 듯했다. 응급대원은 먼저 나를 안심시키려는 듯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는 산소 호흡기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숨을 쉬고 회복이 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안전하게 오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이는 정말 괜찮은 거죠? 지금 출발할게요. 어디로 가면 되나요?” 그 대원은 집에서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K병원 응급실로 이송중이라고 했다. 수화기를 들고 있던 나는 손 마디마디가 마비되고, 심장은 두근거림으로 터지는 것만 같았다. 잠시 후,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이며 직원에게 다급한 사정을 설명하고 응급대원이 알려준 K병원으로 향했다. 퇴근시간 무렵이라 시내에는 내비게이션이 추천해주는 길인데도 답답하게 막혔다. 빨간 신호등 앞에 정지해 있는 분이 1년같이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언제부터였는지 모를 뜨거운 눈물이 두 볼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중략)… 다른 아이들에 비해 열이 급하게 오르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는 세심함이 가장 필요했다. 처음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때 이 점을 강조했고, 다행히도 아이를 맡아주신 돌봄 선생님은 아이의 건강상태부터 체온 변화까지 세심하게 살펴주셨다. 이번 응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돌봄 선생님은 냉철한 판단력으로 응급처리를 재빠르게 하셨다. …(중략)…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격언처럼, 그 여름에 도와주셨던 돌봄 선생님의 정성, 병원과 119 응급대원, 유치원 원장님, 〇〇시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분들까지 한 분 한 분의 사랑과 정성이 있었기에 지금 아이는 놀이터에서, 집에서, 유치원에서 해맑게 뛰어놀고 있다. 그때 내 심장과 뼈를 녹였던 돌봄 선생님의 따뜻한 보살핌은 아직도 우리 가족의 가슴에 깊이 아로새겨져 있다.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